

부산진구 시니어 사회참여공간 ‘개금동 하하센터’ 착공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위한
‘액티브 시니어’ 거점공간
114억 투입 내년 6월 준공

부산진구는 2월 5일 액티브 시니어들의 활기찬 노후와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거점공간 ‘하하(HAHA)센터’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부산진구 행정 책임자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현승 국회의원 및 지역 시·구의원,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시삽 순으로 진행됐다.

‘하하(HAHA)센터’의 ‘하하(HAHA)’는 ‘Happy Aging, Healthy Aging’의 줄임말이다. 부산진구 하하센터는 총사업비 114억 원을 투입해 개금동 22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라운지, 동아리실 등 커뮤니티 공간 △프로그래밍, 강의실 등 평생학습공간 △다목적 강당 △주거지전용주차장 등 시니어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채로운 공간이 들어선다.

특히, 하하센터는 기존의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을 넘어 시니어들의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사회참여 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시니어 동아리 활동 지원은 물론 재능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배

움 활동, 인생 이모작을 위한 공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될 전망이다. 한편 이 센터의 준공 및 개관 목표 시기는 2027년 6월이다. 문의: 가족지원과 노인복지계(605-4324)

- 찾아가GO
- 먼저 챙기GO
- 다시 살피GO

빈틈없는 밀착행정 ‘2026년 부산진 3GO 정책 추진’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라는 민선8기 구정 비전 완성을 위해, 올해 정책 핵심 키워드로 ‘빈틈없는 밀착행정, 살고 싶은 부산진구’를 설정했다. 그리고 구민의 일상에 더욱 밀착한 핵심 정책인 ‘부산진 3GO’ 125개 세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산진 3GO’는 구민의 생활 현장 속으로 행정이 들어가고(가

GO), 불편·위험·갈등이 생기기 전에 챙기며(챙기GO), 사업 이후에도 끝까지 점검하고 보완하는(살피GO) 전 과정 책임 행정을 뜻한다. 첫 번째 ‘가GO(가까이 찾아가는 행정)’분야(41개 사업)에서는 행정이 주민 생활공간 직장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찾아가는 문화·건강 서비스, 현장형 소통행정, 생활밀착형 편익

서비스 등을 통해 주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사업을 확대한다. 두 번째 ‘챙기GO(먼저 챙기는 행정)’분야(50개 사업)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예방 중심 행정을 강화한다. 안전사고 예방, 감염병 관리, 주거분쟁 예방, 생활안전 강화, 편익시책 홍보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세 번째 ‘살피GO(다시 살피는 행

정)’분야(34개 사업)에서는 사업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후관리 중심 행정을 구현한다. 반복 민원·상습 문제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 사업 이후 점검·보완·재정비 체계화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민원 처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예산과 기획계(605-4012)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보장 대폭 확대

온열·한랭질환, 자연·사회재난 의료비 신설

부산진구는 2026년 2월부터 생활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 한도를 확대·강화해 운영한다. 생활안전보험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여러가지 보험이나 부산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를 당한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올해는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 보장항목을 확대했다. 특히 온열·한랭질환 의료비(100만 원 한도)와 자연재난·사회재난 의료비(200만 원 한도)

를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상해사망 보장금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피해 구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상담센터(☎02-785-9611) 또는 부산진구청 안전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안전도시과 자연재난계(605-6321)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 및 신고 철저히 합시다”

부산진구는 해빙기(2월 23일~3월 31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취약 시설 및 급경사지 66곳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감시에 돌입했다.

〈급경사지 안전사고 예방 국민행동요령〉

- 비탈면·낙석위험지역·옹벽·축대
 - 절개지, 암반 등에서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 나 낙석의 위험은 없는지 살핀다.
 -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등의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또는, 훼손이나 방치되어 있는 곳은 없는지 살핀다.
 -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진 곳은 없는지 살핀다.
 - 축대나 옹벽의 배수구나 배수로는 막힌 곳이 없는지 살핀다.
 - 건축물 주변 옹벽·축대는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살핀다.
- 주의 및 신고요령
 - 위험지역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함부로 치우거나 위험 지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 위험요인 발견 즉시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구 재난관리부서 또는 소방서,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한다. 문의: 안전도시과 복구지원계(605-4126)